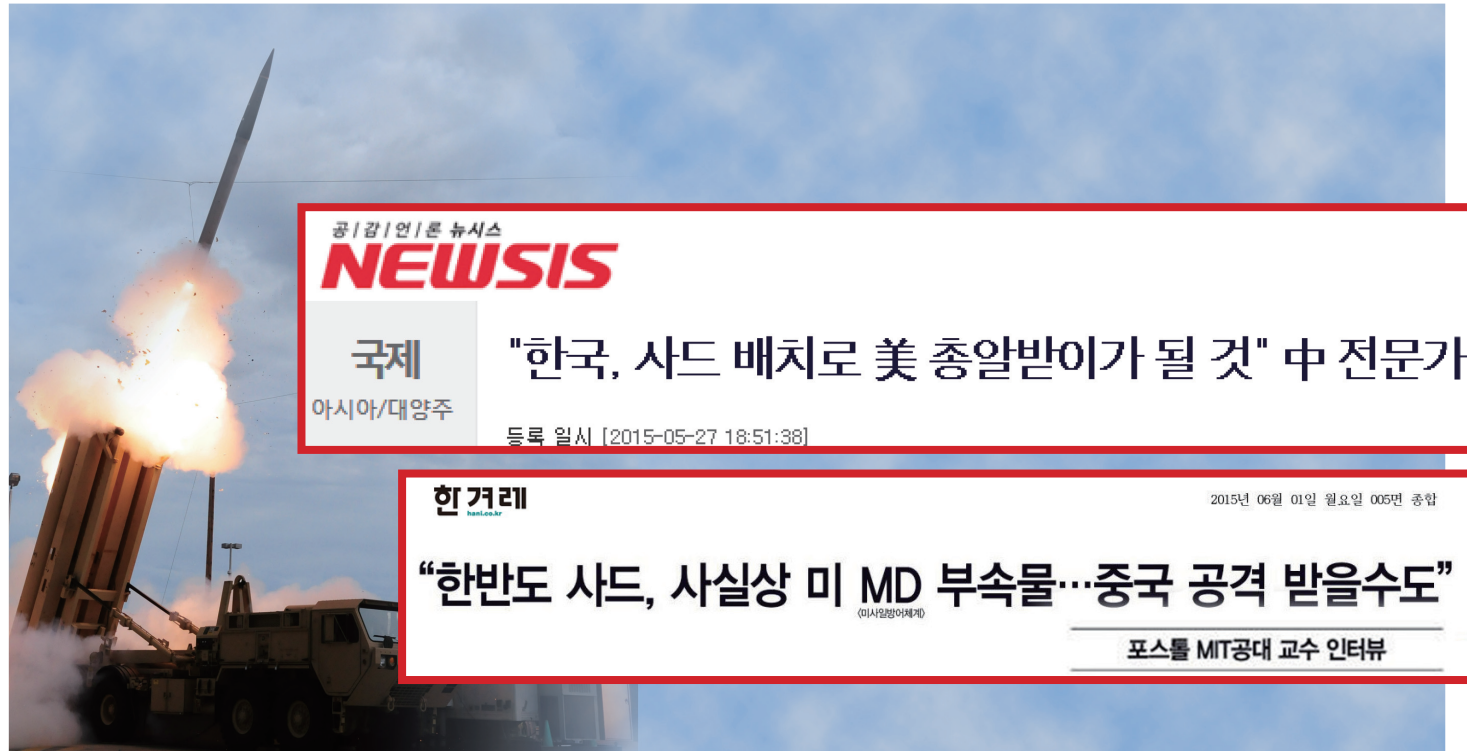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관계 파탄** **평화·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도 큰 타격! **미국, 일본 위한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북중 미사일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고, 미일 미사일방어망(MD)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납니다.
-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에 가담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성되어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양 진영으로 갈려 대결이 격화됩니다.
-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통일도 늦어집니다.
-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군사관계가 적대화 되면 경제관계도 악화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북방 진출 기회도 상실당합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평택, 대구, 부산, 원주 등 5개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조사를 진행했고,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군) 막아내자!

마침내 위험적인 **전쟁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아베 정권!**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위안부와 강제 징용..
사죄하지 않는 이유!
배상하지 않는 이유!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뜻!



군사대국화로 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일본!

- 일본 아베 정권은 '종전 70년 담화' 에서 러일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또다시 한국민을 우롱했습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것은 군사대국화로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근 전쟁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란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제3국과, 곧 북한이나 중국과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법안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전쟁)을 포기한 자국의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전수방어 원칙도 포기하였습니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자위대)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군의 요구에 따라 남한에 들어와 북한을 상대로 미일 연합작전을 벌일 수도 있으며, 유엔 다국적군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출병하는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군홧발이 또다시 한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만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막아냅시다!

미국과 일본이 강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안돼!

침략 전쟁에 면죄부를 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미국!

-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포위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정부에게 일제 침략과 식민 수탈에 눈감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美 "과거사, 한·중·일 모두 책임"

웬디 셔먼 / 미국 국무부 차관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



-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동북아 미사일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고리인 사드 한국 배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방어망에 참여하면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동족을 등지고 일본을 돕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상황을 자초하게 됩니다.
-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 한국은 앞으로 F-35 전투기의 부속품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정비도 일본에 맡겨야 하는 등 이미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일이 강요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저지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대결 구도에 말려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또 다시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치욕스런 일제 식민지배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광복 70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드가 남한 방어용?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희생해야 합니까?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

-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중국 내륙까지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은 탐지거리가 900km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를 2기나 보유하고 있고, 탐지거리가 1,000km인 이지스 레이더도 3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 미사일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워!

- 한반도는 남북의 길이가 짧아 북한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 노동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이용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 (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미 의회 보고서, “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 낮다”
(2015.4)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부지제공뿐 아니라 유지비도 부담해야 함!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강력한 전자파로 주민건강 위험!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경우 무려 4조원~8조원이 들어가야 함!
사드 한국 배치는 나라와 민족에 백/해/무/익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정부, 기업지원 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과 함께해 주세요!



회/원/가/입 · 후원

☎ 02-711-7292 www.peaceone.org